

## 파니움 - 제23호

그는 그 동맹 후에 거짓되이 행할 것이다.

Jeff Pippenger

2026-03-20

다니엘 11장 24절은 이교 로마가 절대적 패권을 행사할 기간을 “한 때”라는 말로 밝히고 있다. 예언적 적용에서 “한 때”는 360년을 나타내며, 그 연수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 곧 고대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전에서 시작되었다. 더 규모가 크고 전략적으로도 더 정교한 해전들이 있었으나, 악티움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가장 상징적인 해전이었다. 그것은 다니엘 11:40의 성취로서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요한계시록 18장의 성취로서의 9·11의 쌍둥이 빌딩과 역사적 중요성에 있어서 유사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역사적 사건들을 택하실 때,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청중의 주목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맺은 동맹 이후에 그는 속임수로 행하리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성하게 될 것임이라. 그는 평안히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들에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도 하지 못하였고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도 하지 못하였던 일을 행할 것이요, 또 탈취물과 노략물과 재물을 그들 가운데 흠여 줄 것이며, 참으로 한동안 견고한 요새들을 대적하여 자기의 계책을 도모하리라. 다니엘 11:23, 24.

유라이어 스미스는 23절의 로마와 마카비 사이의 동맹에 대한 자신의 고찰을 마치며, 그 절에 언급된 소수의 백성에 대하여 논평한다.

이때 로마인들은 작은 민족이었으며, 그 말이 뜻하는 바와 같이 속임수로, 곧 교활한 계책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그들은 꾸준하고도 신속한 상승을 통해, 후일 그들이 이르게 된 권력의 정점에까지 올라갔다.

“[24절 인용됨].”

로마 시대 이전에 여러 나라가 가치 있는 지방들과 비옥한 영토에 들어가 차지하곤 하던 통상적인 방식은 전쟁과 정복에 의한 것이었다. 이제 로마는 조상들이나 그 조상들의 조상들도 하지 못하였던 일을 하게 될 것이니, 곧 이러한 획득물을 평화로운 수단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하였던 관례, 곧 왕들이 유증으로 자기들의 왕국을 로마인들에게 남겨 주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 로마는 이러한 방식으로 광대한 지방들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자들은 거기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 그들은 친절과 관용으로 대우를 받았다. 그것은 마치 먹이와 전리품이 그들 가운데 나누어지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원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로마 권세의 비호 아래 평안과 안전 가운데 안식하였다.

“이 구절의 후반부에 대하여, 뉴턴 주교는 요새들을 대적하여가 아니라 요새들로부터 계책을 미리 내다본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로마인들은 일곱 언덕의 그들의 견고한 성채인 도시로부터 이를 행하였다. ‘한때까지라’는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언적 때, 곧 360년을 뜻한다. 이 연수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는가? 아마도 다음

절에 제시된 사건으로부터일 것이다.” 우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계시록』, 272, 273.

스미스는 계속하여 기원전 31년의 악티움 전투를 그 삼백육십 년의 시작점으로 지목한다. 25절을 인용한 후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3절과 24절을 통하여 우리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의 동맹, 곧 기원전 161년 이후의 시기로 내려오게 되며, 로마가 보편적 지배권을 획득한 때에 이르게 된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절은 남방 왕 곧 애굽을 향한 강력한 원정을 보여 주며, 크고 강한 군대들 사이에서 벌어진 주목할 만한 전투의 발생을 제시한다. 과연 이러한 사건들이 이 무렵 로마의 역사에서 일어났는가? — 그러하였다. 그 전쟁은 애굽과 로마 사이의 전쟁이었고, 그 전투는 악티움 해전이었다. 이 충돌로 이르게 한 정황들을 간략히 살펴보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그리고 레피두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맹세한 삼두정치를 구성하였다. 이 안토니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누이 옥타비아와 결혼함으로써 그의 매제가 되었다. 안토니우스는 공무로 이집트에 파견되었으나, 방탕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술책과 매력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가 그녀에게 품게 된 정욕은 너무도 강렬하여, 마침내 그는 이집트의 이해관계를 지지하고, 클레오파트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아내 옥타비아를 버렸으며, 그녀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州) 하나하나를 그 여인에게 하사하고, 로마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개선식을 거행하였으며, 그 밖에도 여러 방식으로 로마 국민을 모욕하였으므로, 아우구스투스는 그들을 이 조국의 적을 상대로 한 전쟁에 열심히 나서도록 이끄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이 전쟁은 겉으로는 이집트와 클레오파트라를 대적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제 이집트 affairs의 수장이 된 안토니우스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논쟁의 진정한 원인은, 프리도에 의하면, 그들 중 어느 쪽도 로마 제국의 절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레피두스가 삼두정치에서 축출된 후로는 제국이 이제 그들 둘 사이에 놓이게 되었고, 각자가 전부를 차지하기로 결심하였으므로, 그들은 그것의 소유를 위하여 전쟁이라는 주사위를 던졌던 것이다.” 우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273.

예언적으로 볼 때 악티움 전투는 일요일 법을 가리키는데, 이는 스미스가 묘사하듯이 이교 로마의 “세계적 지배권”을 확립한 세 지리적 장애물 가운데 셋째를 정복한 사건을 대표하였기 때문이다. 이교 로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황 로마의 셋째 장애물이 로마 시에서 축출되었을 때 비로소 교황 로마의 “세계적 지배권”이 538년에 시작되었다. 그 두 증인은, 현대 로마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과 일곱째 왕국을 모두 이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셋째 장애물을 극복하여, 상징적인 마흔두 달 동안 “세계적 지배권”을 확립하는 바로 그 때와 곳에서 일요일 법을 다룬다.

또 그에게 큰말과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이 주어졌고, 마흔두 달 동안 활동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요한계시록 13:5.

## 로마가 애굽을 대적함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와 클레오파트라를 상대로 벌인 전쟁의 예언적 역학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반역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그 예언적 역학은 예언적 필연성에

의해 일요일 법령에서 나타나는 예언적 역학을 대표해야 한다.

악티움에서 로마는, 반역한 남자와 거룩하지 않은 여자의 동맹으로 이루어진 세력인 이집트를 정복하였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동맹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다. 악티움에서 아우구스투스의 로마는 교회와 국가의 거룩하지 않은 결합으로 표상된 세력을 정복하였다.

## 짐승의 이상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상징인 안토니와 결합한 타락한 교회를 나타낸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들의 관계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였는데, 이는 우리아 스미스가 안토니에 대하여 "이집트의 방탕한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술책과 매력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말한 데서 나타난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로 표상된 교회와 국가의 연합은, 그 관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클레오파트라임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계로 표상된 교회와 국가의 결합은, 곧 여자가 그 관계를 지배하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라는 짐승의 이상의 정의에 부합한다. 악티움은 곧 도래할 일요일 법을 예표하였다.

아우구스투스는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서 미국을 정복하는 교황권을 상징한다. 마르크 안토니우스는 땅의 짐승의 공화당 뿔이며, 클레오파트라는 개신교 뿔이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서 함께 결합하여 용처럼 말한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둘 다 용의 세력을 상징하며, 그들이 일요일 법령에서 완전히 연합할 때—그들은 용처럼 말한다.

## 용들

헬라와 애굽은 둘 다 예언적으로 용의 세력을 상징하며, 안토니 역시 용의 세력을 상징하였다. 애굽은 다니엘 11장에서 남방이었고 헬라는 서방이었다. 애굽은 알렉산더의 왕국이 네 부분으로 분열된 후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리하여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예언상 최초의 남방 왕이 되었고, 클레오파트라는 애굽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였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출생지인 마케돈에서 태어났다.

마케돈은 그리스 북부에 있었으며, 그들의 조상적 기원이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 남부의 도시국가들은 마케도니아인들을 남부 그리스의 헬레니스트들보다 더 야만적이라고 여겼다. 마케도니아는 군주국이었고,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코린토스 등과 같은 남부의 도시국가들(poleis)은 그리스 남부와 중부 및 에게해의 섬들에 있었다. 이들 poleis는 흔히 민주정, 과두정, 또는 혼합 정체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마케돈은 강력한 왕조(아르게아스 왕조)를 갖춘 중앙집권적 군주국이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두 헬레니스트들이었으며, 로마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을 때 로마는 헬레니스트들을 그리스인이라고 불렀다.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였는데, 이는 마케돈, 곧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나온 그리스인들의 북방 왕국의 군주적 지파를 대표하였다.

## 남방의 왕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더의 왕국이 넷으로 분열되었을 때 프톨레마이오스 1세와 함께 시작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였다. 악티움 전투에서 문자 그대로의 남방 왕인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은 종말에 이르렀다. 그다음 남방 왕은 영적 애굽이 될 것이며, 이는 프랑스 혁명 시대의 역사에서 무신론적 프랑스로 대표되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거리 위에 놓이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 또 애굽이라 불리며, 곧 우리 주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요한계시록 11:8.

문자적 애굽은 알렉산더 왕국의 분열과 관련하여 문자적인 남방 왕이었으나, 영적 애굽은 문자적인 방위가 아니라 애굽의 예언적 속성에 의해 남방 왕으로 표상된다.

## 남쪽과 서쪽

클레오파트라는 그 왕국의 마지막 프톨레마이오스 통치자였으므로, 예언적으로는 헬라(서방)와 애굽(남방)의 이중 권세였다. 반면에 그 다음의, 곧 영적인 남방 왕은 프랑스가 될 것이며, 또한 계시록 11장에서 애굽과 소돔으로 표상된 이중 권세이다. 소돔의 방탕함은 서방의 클레오파트라의 방탕함과 일치하며, 남방의 클레오파트라는 애굽의 무신론과 상응한다. 문자적 의미에서 마지막 남방 왕의 이중적 본성은 영적인 첫 남방 왕과 일치하였다.

악티움 전투는 안토니우스의 로마의 용과 클레오파트라의 남방과 서방의 용이 맺은 불경한 동맹이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교회와 국가를 대표하므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악티움을 정복한 것은 짐승의 우상을 예표하는 불경한 이중 연합 위에 로마가 우위를 점하는 정복을 나타낸다. 그로부터 삼백육십 년 후, 다니엘 11:24의 성취로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를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어, 로마의 여인은 서방에 남겨 두고 로마의 남자는 동방으로 옮겼다. 남방과 서방에 대한 정복은, 악티움 전투에서 삼백육십 년이라는 한 “때” 후에 이루어진 동방과 서방의 분열을 예표하였다. 더 이른 한 대면에서 안토니우스는 동방 로마를, 아우구스투스는 서방을 받았으므로, 악티움은 동방과 서방을 함께 모았으나, 오직 한 “때” 동안만 그러하였다.

## 기원전 31년과 330년

예수께서는 항상 끝을 시작으로 예시하시므로, 기원전 31년 악티움의 정복은 330년에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는 일을 예표한다. 기원전 31년의 악티움은 330년에 끝나는 360년의 기간에서 오메가의 알파였다. 기원전 31년과 330년은 모두 다니엘 11장 16절과 4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곧 다가올 일요일 법을 예표한다.

## 또 다른 상징

남방과 서방의 클레오파트라와 결합한 로마의 안토니우스는 짐승의 형상의 이중적 연합 내부에 있는 삼중 동맹을 나타낸다. 십자가는 또한 일요일 법과, 따라서 악티움 및 330과도 일치한다. 십자가에서는, 유대인들(타락한 교회)이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로마(국가)와 결합함으로써 교회와 국가의 이중적 연합이 제시된다. 십자가에서 그 연합의 제3자는 거짓 그리스도인 바라바로 표상되는데, 그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바라바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와 대조될 때 상징적으로 거짓 선지자이다. 로마는 안토니우스였고, 남방과 서방의 클레오파트라는 유대인들과 바라바를

나타내었다.

십자가는 또한 갈멜산의 엘리야와도 일치하는데, 그곳에서의 선택은 누가 참 선지자이며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때의 거짓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이중적 상징이었다. 바알은 남신이며,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여신 아스다룻을 나타냈다. 십자가 곁에 있던 유대인들은 여신 아스다룻이었고, 고난의 사람의 위조물인 바라바는 남신 바알이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남방의 여왕이자 서방의 여왕이었다. 안토니는 로마의 형상이었으며, 율리우스의 암살에 대한 복수를 맹세한 삼중 삼두정치인 한 부분이었다. 율리우스가 스물세 개의 상처로 죽은 것은 다니엘 11장 40절의 성취로서 1798년에 입은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를 표상하였다. 악티움에서의 아우구스투스는 그 치명적인 상처의 치유를 나타낸다. 그 상처는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가 죽을 때 치유된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라는 미국 안에 있는 짐승의 형상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땅의 짐승과 그 두 뿔로 이루어진 삼중의 예언적 실체이다. 안토니는 그 한 부분이며, 클레오파트라라는 나머지 두 부분을 나타낸다. 그것이 안토니의 로마이든, 혹은 클레오파트라와 이집트와 헬라이든,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 끝나는 일요일 법령 때에 그들은 함께 죽는다. 예언적으로 안토니와의 관계에서 클레오파트라라는 교권적 술책과 국권적 술책의 혼합이며, 교권적 술책이 국권적 술책을 유혹하고 지배한다.

## 예표된 둘째 사망

또 다른 예언적 차원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율리우스 카이사르 및 마르크 안토니우스의 관계는 클레오파트라의 교회적 술수가 로마 제국의 국가적 통치술과 관계를 맺는 두 시기를 나타낸다. 그녀는 다니엘 11장 40절의 성취로서, 그녀의 첫 번째 상징적 죽음인 1798년에 율리우스에게 버림받았고, 이어서 다니엘 11장 45절의 성취로서 악티움에서도와줄 자 없이 그녀의 종말에 이른다. 40절은 치유될 그녀의 첫 치명적 상처의 알파이며, 45절의 오메가는 그녀가 두 번째이자 최종적인 죽음을 받는 곳이다.

16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로마의 네 세력이 그러하듯이, 성경적 상징으로서의 클레오파트라도 문맥에 따라 하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왕권적 지지가 제거되었던 1798년에 율리우스는 그녀를 떠났고, 이어서 그녀의 치명적인 상처는 일요일 법령 때에 치유되지만,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은 마침내 그녀를 불로 멸하여, 그녀가 두 번째이자 최후의 죽음을 맞게 한다.

클레오파트라라는 바로의 이집트의 무신론과 그리스의 종교 철학으로 대표되는 이중적 본성의 상징이다. 그녀의 이중적 본성은 이집트의 국가 술책과 그리스의 교회 술책을 나타낸다. 그리스의 종교 철학은 그리스 여신 아테나로 상징되는데, 그녀는 파르테논이라 불리는 그녀의 신전 안에 조각상으로 봉안되었다. 아테나는 지혜의 상징이며, 여인으로서 그녀는 신적 교육과 대조되는 인간 교육의 종교를 나타낸다.

미국의 두 뿔은 공화주의와 개신교인데, 이것들은 프랑스에서 애굽과 소돔으로 예표되었다. 애굽은 국가의 책략이며 소돔은 교회의 책략이다. 그러므로 공화주의는 애굽과 일치하고, 개신교는 소돔과 일치한다. 공화주의는 애굽이며, 개신교는 소돔이자 헬라이다. 인간 교육의 상징은 헬라의 여신 아테나인데, 그의 신전은 파르테논이었으며,

그것은 오늘날 테네시주 내슈빌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그 현대적 쌍둥이를 발견한다. 미국에서 일요일 법 제정 시 공화주의의 별과 결탁하는 부패한 교회의 상징은 클레오파트라, 아스다룻, 살로메, 그리고 소돔으로 제시된다.

클레오파트라는 바로의 무신론과 그리스인들의 종교를 묘사한다. 무신론 철학에 수반되는 종교는 그리스 교육에 대한 숭배이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처음으로 마지막을 예증하시며, 동산 가운데서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이는 자매 화이트이 "고등 교육"이라고 부르는 그리스 철학의 종교를 예표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에서 참된 교육의 부패하고 위조된 것으로서, 지혜를 내세우는 클레오파트라의 그리스 종교를 규정하고 강조한다.

테네시주 내슈빌은 "남쪽의 아테네"라 불리며, 클레오파트라는 문자 그대로의 마지막 남방의 여왕이었다. 마지막 남방의 여왕은 다음에 오는 최초의 영적 남방의 왕을 예표하였으며, 그것은 무신론적 프랑스로 성취되었다. 무신론적 프랑스는 미국을 예표하는데, 그곳 테네시주 내슈빌, 곧 "남쪽의 아테네"에는 여신 아테나를 위한 파르테논 신전이 상징적으로 재현되어 있다. 그 신전은 내슈빌 웨스트 엔드 2500번지에 위치해 있다. 숫자 스물다섯은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에 나타난 닫힌 문을 상징한다. "남방"과 "서방"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는 남쪽의 아테네에서 그녀의 "끝"에 이른다.

악티움, 클레오파트라, 아우구스투스, 안토니우스에 대한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니엘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로 다시 돌아간다. 아마도 이 구절에서 가장 모호한 부분은 그들이 한 상에서 거짓을 말한다는 대목일 것이다.

이 두 왕의 마음은 악을 행하려는 데 있을 것이요, 그들은 한 상에서 거짓을 말할 것이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끝이 아직 정한 때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11:27.

그 구절에 지정된 때는 330으로서, 24절의 "때"의 끝이다. 지정된 그 때는 미국을 위한 일요일 법을 나타내며, 또한 세상을 위한 인간의 은혜의 시기의 종결을 나타낸다. 일요일 법 이전에, 마음에 해를 행하려는 두 왕이 한 상에서 서로 거짓을 말할 것이다. 다니엘 11장 16절과 41절의 일요일 법 이전에, 두 왕이 한 상에서 거짓을 말하겠으나 그들의 거짓은 형통하지 못한다.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는 그 두 왕은 누구인가? 그 생각에 답하기에 앞서, 이 연속 강론에서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몇 가지 상징을 상기하고자 한다.

네 명의 로마 통치자들은 그것들이 어떤 문맥에서 고려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예언적 상징들을 나타낸다. 비록 로마의 통치자들이지만, 상징으로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고대 유다의 예언적 역사를, 곧 유다가 셀레우코스의 지배에서 로마의 지배로 이행해 가던 과정을 나타낸다.

폼페이상은 장군이었고, 그 다음의 세 로마 통치자는 모두 카이사르들이었다. 율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와의 관계에서 두 개의 삼중 연합, 곧 첫 번째는 비공식적이고 두 번째는 공식적인 두 삼두정치와 연관되어 이를 대표하였다. 이 네 통치자는 모두 특정한 맥락에서 일요일 법령을 나타낸다. 폼페이는 영화로운 땅을 정복하였고, 스물세 차례의 자상으로 표상되는 율리우스는 첫째 천사인데, 이는 그가 첫 번째 카이사르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는 셋째 천사, 곧 티베리아스를 예표한다. 십자가에서의 티베리아스는, 곧 일요일 법령이며, 또한 스물셋으로 표상되는데, 이는 스물셋이 속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분의 신성을 우리의 인성과 결합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지극히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러므로 율리우스와 티베리아스는 첫째와 셋째 기별이며, 스물셋으로 표상된다.

율리우스는 흔히 할리우드의 전설에서 묘사되듯 낭만적인 인물이 아니었으며, 권력에 사로잡힌 무자비한 사람이었다. 티베리아스는 율리우스보다 더 악하였으니, 그의 비열함은 그 절에서조차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는 스물두 번째이고 첫 글자는 첫 번째이다. 알파는 오메가보다 작으며, 티베리아스의 비열함은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에 해당하는 스물두 번째 절에 위치해 있고, 율리우스와 티베리아스로 상징되는 두 비열한 인물 사이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권세와 위신의 영광이 절정에 이른 모습을 대표한다. 첫째와 셋째 기별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로서 그는 반역의 상징인 열셋째 글자로 표상된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반역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반역을 진압함으로써 그의 왕국을 확고히 하였다.

아우구스투스는 세 번째 장애물을 정복한 로마 세력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일요일 법을 표상하였고, 또한 계시록 13장의 반역의 마흔두 상징적 달 동안 통치하는 로마 세력이기도 하다. 일요일 법 앞에 놓일 때 폼페이우스는 1798년이자 1989년이 되며, 이로써 폼페이우스는 기원전 219년부터 217년까지의 제4차 시리아 전쟁을 끝내는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의 상징이 되며, 이는 11장 10절의 성취이다. 이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11절과 12절, 곧 경계선의 전쟁인 기원전 217년 라피아 전투와 일치한다. 거기서 율리우스 역시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이며,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역시 15절의 파니움 전투에서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이다. 그런 다음 16절에서 티베리우스는 일요일 법이지만, 그는 안티오쿠스 마그누스가 아니다. 이는 그곳에서 그가 폼페이우스이기 때문이며, 예수께서는 항상 끝을 시작으로 예증하시기 때문이다. 그 절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미국의 종말을 예표하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종말을 가리킨다.

로마의 네 통치자들에 관하여 더 이루어져야 할 정렬들이 있으며, 그 계보는 40절의 숨겨진 역사를 나타낸다. 23절의 마카비 계보 역시 40절의 숨겨진 역사를 예증한다. 이어서 24절에서는 이교 제정 로마의 이야기가 한 기간, 곧 360년으로 제시된다. 24절부터 30절에 이르기까지 제시된 로마 역사의 계보 또한 40절의 숨겨진 역사를 예증하는 것이다. 그것은 31절에서 끝나는데, 이는 주제가 이교 로마에서 교황권 로마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교 로마는 여전히 그 절 안에 있으나, 거기에서는 성경 예언의 넷째 왕국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538년에 교황권을 보좌에 앉힌 정치적 세력으로 제시된다. 538년에 교황권은 일요일 법을 통과시켰으므로, 31절은 16절과 41절에 정렬된다. 24절은 악티움 전투와 그 계보에 관련된 역사를 도입하였다.

24절은 이교 로마가 삼백육십 년 동안 최고의 지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때를 밝히고 있으며, 이어 31절에서는 교황 로마가 천이백육십 년 동안 최고의 지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그 계열의 시작과 끝에는 그리스도, 곧 알파와 오메가의 표지가 새겨져 있다. 이 절들 속에는 마르크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역사가 담겨 있다. 16절에서 이교 로마는 기원전 65년에 셀레우코스 제국을 정복하였고,

이어 기원전 63년에 유다를 정복하였다. 기원전 31년의 악티움이라는 세 번째 장애물은, 기원전 65년에 있었던 셀레우코스의 첫 번째 장애물로 예표된 바와 같이, 이집트 왕국의 종말을 드러내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의 표지를 발견한다. 기원전 65년은 세 장애물 가운데 첫 번째였으며 북방 왕의 정복을 나타냈고, 기원전 31년은 세 장애물 가운데 세 번째였으며 남방 왕의 정복을 나타냈다. 세 장애물 가운데 가운데 장애물인 유다는, 폼페이우스가 기원전 63년에 도착하였을 때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내전을 겪고 있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반역의 상징이다.

538년에 교황 로마를 위한 세 번째 장애물이 로마 시에서 제거되었다. 그 장애물은 곧 고트족이었으며, 바로 그곳에서 성경 예언의 다섯 번째 왕국이 시작되었으니, 넷째 왕국이 끝난 바로 그 자리였다. 그리고 넷째 왕국이 그 셋째 장애물에서 시작된 것과 같이, 이집트 왕국이 패배하였으니, 이는 셀레우코스 왕국의 첫째 장애물에서 예표된 바였다. 이것은 24절부터 30절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예언적 증언이 또한 40절의 숨겨진 역사 속에서도 찾아져야 할 한 계보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혀 준다. 이러한 이유로, 마르크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율리우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로 대표되는 다양한 예언적 관계들을 고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상에서 거짓말을 말할 때, 24절부터 30절에 이르는 그 구절의 가장 모호한 부분도 그러한가?

이 두 왕의 마음은 서로 해하려는 데에 있을 것이며, 그들은 한 상에서 거짓을 말할 것이나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끝이 아직 정한 때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11:27.

우리아 스미스는 그 두 왕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로 동일시한다.

“27절 인용”

“안토니우스와 카이사르는 이전에는 동맹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정의 외양 아래서 둘 다 세계적 지배권을 얻고자 야망을 품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우정을 표명한 그들의 말은 위선자들의 발언이었다. 그들은 한 상에서 거짓을 말하였다. 안토니우스의 아내이자 카이사르의 누이인 옥타비아는, 안토니우스가 자신과 이혼할 당시 로마 백성에게, 자신이 그와 결혼하기로 동의한 것은 오직 그것이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 사이의 연합을 보증하는 담보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계획은 형통하지 못하였다. 결렬이 닥쳤고, 그 뒤에 이어진 충돌에서 카이사르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Uriah Smith, Daniel and the Revelation, 276.

옥타비아가 안토니우스와의 결혼이 연합의 서약과 같았음을 드러냈을 때, 그것은 앞서 11장에서 기원전 252년경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의 딸 베레니케가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코스 2세 테오스와 맺은 헬레니즘 시대의 결혼으로 예표되었던 혼인 동맹을 드러낸 것이었다. 옥타비아와 베레니케는 외교적 결혼, 곧 예언적으로는 조약을 나타낸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 사이의 외교적 결혼의 역사를 보여주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훗날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로 알려지게 되는 옥타비아누스가 그 결혼을 주선했을 때, 그들은 또한 왕국을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었다.

브룬디시움 협정(Pact of Brundisium, 기원전 40년)은 내전에 가까운 충돌 이후 제2차 삼두정치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훗날 아우구스투스) 사이에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타결이었다. 이 협정은 로마 영토를 분할하는 것(안토니우스는 동방, 옥타비아누스는 서방)과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옥타비아누스의 누이)와 결혼함으로써 확증되었다. 기원전 39년에 본래의 5년 삼두정치 임기가 만료되자, 안토니우스는 300척이 넘는 함선을 이끌고 이탈리아로 향해하였으나 처음에는 브룬디시움에 상륙하는 것이 거부되었고, 결국 타렌툼에 정박하였다.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옥타비아누스의 군대와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고 옥타비아누스의 군대도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에 오랜 중재가 이루어진 끝에, 옥타비아누스가 그곳에서 그를 만났다. 옥타비아는 안토니우스를 설득하여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에 맞서 옥타비아누스를 지원하게 함으로써 핵심적인 중재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삼두정치를 다시 5년(기원전 32년까지) 연장하였으며,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가 약속한 병력과 맞바꾸어 120척의 함선을 제공하였으나(이 병력은 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제공하지 않았다).

기원전 32년에 두 대적자 사이에는 공개적인 결별이 있었다. 선전, 안토니우스의 동방 중심 정책(클레오파트라와 함께한),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의 서방에서의 권력 공고화를 통하여 관계는 악화되어 있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이전에 안토니우스가 훗날 제안한 회담 제의들을 거절하였다.

북방 왕(안티오쿠스)과 남방 왕(프톨레마이오스) 사이의 외교적 혼인에서는 신부를 제공한 쪽이 남방 왕이었고, 안토니우스(동방)와 옥타비아누스(서방) 사이의 외교적 혼인에서는 신부를 제공한 쪽이 서방이었다. 이 두 외교적 혼인은 모두 실패하였으며, 딸이나 자매를 제공한 쪽이 결국 조약을 깨뜨린 세력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 세 증언

셀레우코스 제국의 말기에, 한 상에서 거짓말이 오간 세 번째 조약이 있었다. 이는 제5차 시리아 전쟁(기원전 202-195년)의 맥락에서 일어난 것으로,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가 기원전 204년 프톨레마이오스 4세 필로파토르의 죽음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약화를 이용하였을 때였다. 프톨레마이오스 5세 에피파네스(프톨레마이오스 5세)는 어린아이(대략 5-6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이집트는 섭정들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고 내부의 혼란, 토착 반란, 외부의 위협에 취약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안티오코스 마그누스는 이미 파니움 전투(Battle of Panium, 기원전 200년)와 같은 승리 이후 코엘레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영토 상당 부분을 침공하여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하는 대신(로마가 그에게 특정 지역에 관여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로마의 개입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보호자"와 같은 인물로서 외교적 혼인 동맹을 추구하였다. 기원전 197/195년에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 조약의 일부로, 안티오코스 마그누스는 자신의 어린 딸 클레오파트라 1세 시라(Cleopatra I Syra, 또한 Cleopatra Syra라고도 함)를 어린 프톨레마이오스 5세와 약혼시킨 후 결혼시켰다(이 결혼은 기원전 193년에 라피아(Raphia)에서 이루어졌으며, 프톨레마이오스는 16세, 클레오파트라는 10세였다).

이 일은 관대한 제스처로 꾸며졌다. 곧 안티오쿠스는 자신을 어린 왕의 동맹자이자 "보호자"로 내세우며, 아시아에서의 이득을 유지하는 가운데 평화를 확보하였다. 그 결혼은 그의 딸을 통하여 그에게 이집트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을 부여하였다(그는 그녀가 셀레우코스 왕조의 뿌리에 충성을 유지하며 프톨레마이오스 궁정에서 친시리아적 목소리로 행동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책략은 역효과를 낳았으니, 클레오파트라라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남편과 이집트의 편에 섰고, 그리하여 안티오쿠스의 장기적 지배를 약화시켰다. 이것은 브룬디시움 조약(주전 40년)을 반영하며, 여러 면에서 로마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안토니우스가 준전쟁 상태 이후 경쟁하는 세력들을 결속시키기 위하여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옥타비아와 결혼한 것과 같이, 안티오쿠스도 자기 딸을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게 시집보내어 일시적인 평화와 영토 분할을 공식화하였다(셀레우코스 왕조는 북방에서의 정복지를 유지하였고, 프톨레마이오스는 남방의 이집트를 보유하였다).

안티오쿠스는 어린 왕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 대하여(가족적 유대를 통하여) 사실상의 후견인으로 행동하였는데, 이는 옥타비아누스(및 제2차 삼두정치)가 권력의 공백이나 경쟁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 방식과 유사하다. 두 경우 모두에서 "더 강한" 인물(안티오쿠스/옥타비아누스)은 친족 관계를 통하여 취약한 상대방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두 체제는 모두 단기적인 안정은 가져왔으나, 기저에 깔린 불신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는 '형통하지 못하였다'—클레오파트라라는 이집트를 지지하여(안티오쿠스를 약화시키며), 반면 안토니우스의 동방 중심적 노선(클레오파트라 7세)은 옥타비아누스와의 결렬로 이어졌다.

섭정들의 감독 아래 있던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미성년 통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의 불안정과 평행을 이룬다(그 결과 삼두정치의 성립과 권력 투쟁이 뒤따랐다). 베레니케가 안티오쿠스와 혼인한 일은 다니엘서 11장에서 셀레우코스 제국의 역사의 시작을 표시하였고,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의 딸이 이집트의 어린 왕과 혼인한 일은 셀레우코스 제국의 종말을 표시하였다. 마르크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의 혼인의 종결은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종말을 표시하였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유다의 종결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유대 왕국은 마카비인들과 그들이 로마와 맺은 동맹으로 시작되었다. 이 모든 예언적 계보는 다니엘서 11장의 서술 속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모두 40절의 숨겨진 역사와 일치한다. 5절에서 시작하여 우리는 베레니케의 조약을 보게 되며, 그것은 안티오쿠스 대왕과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 시라의 조약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23절의 마카비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다. 마카비인들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마지막 인물들 가운데 하나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한 그들의 반역에 근거하여 그 계보의 일부가 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제6차 시리아 전쟁 중이던 주전 168년 알렉산드리아 근처의 이집트에 있었던 그 안티오쿠스이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집트를 침공하여 알렉산드리아를 함락시키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자들은 로마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로마는 포필리우스 라에나스(소수의 수행원만 대동하고—군대는 없이)를 보내 원로원의 최후통첩을 전달하게 하였으니, 안티오쿠스는 즉시 이집트와 키프로스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로마와의 전쟁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안티오쿠스가 그 서한을 받고 자문관들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하자, 엄하고

권위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포필리우스는 지팡이를 들어 왕의 발 주위 모래 위에 원을 그었다. 그리고는 “그 원 밖으로 발을 내딛기 전에, 내가 원로원 앞에 제시할 답을 내게 주시오”라고 선언하였다.

그 의미는 분명하였다. 안티오쿠스는 로마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고서는 그 원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합의 없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였다. 충격을 받고 굴욕을 당한 안티오쿠스는 잠시 주저하였으나, 이내 이에 따르기로 동의하고, 이집트에서 그의 군대를 철수시킨 뒤 시리아로 돌아갔다. 이 대담한 외교적 조치(로마의 증대하는 권력에 대한 명성이 그 배경이 되었다)는 전투 없이 후퇴를 강요하였고, 동부 지중해에서 부상하던 로마의 지배력을 드러내 보였다. 이것은 흔히 “모래 위에 선을 긋다”라는 표현의 기원으로 인용되지만(실제로는 원이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또한 다니엘 11장 14절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넘어지며 그 환상을 세우는 권세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이해가 되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남방 왕을 대적할 것이며, 또 네 백성 가운데 강포한 자들이 스스로 높여 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다니엘 11:14.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기원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통치하였으며, 셀레우코스 왕조의 열세 왕 가운데 여덟 번째였다. 그는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고 그리스 종교 관습 아래 자신의 제국을 통일하고자 하였다. 그는 기원전 169년에 성전을 약탈하였고, 유대인의 관습들(할례, 안식일 준수, 토라 연구)을 금지하였으며, 이교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강요하였다. 기원전 167년 12월에는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의 번제단 위에 이교 제단(제우스에게 바치는)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쳤으며, 그 밖에도 여러 모독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성전 모독은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에게 최후의 한계점이 되었는데, 그들은 이를 성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궁극적인 침해로 보았다. 이는 모데인 출신의 제사장 맛다디아가 이교 신들에게 제사하라는 셀레우코스 관리의 명령을 거부하고, 배교한 유대인 한 사람과 그 관리를 죽인 뒤 자기 아들들(훗날의 마카비 가문)과 함께 산지로 도피하였을 때 즉각적인 저항을 촉발하였다. 이로써 기원전 167년부터 160년까지 유대인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게릴라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고, 이는 마침내 유다 마카베오의 지도 아래 기원전 164년에 성전의 재봉헌(하누카)으로 이어졌다.

셀레우코스 제국의 시작과 끝에는 외교적 결혼으로 표상된 중요한 조약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과 서, 혹은 북과 남의 분열이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셀레우코스 제국이 쇠퇴함에 따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떠오르는 로마 세력의 상징이 되었고, 마카비가들의 분노의 초점이 되었다. 후에 역사 속에서 그는 그 이상을 확립하는 예언적 상징의 위조물이 된다. 제11장 22절의 그 권세는 언약의 통치자가 꺾였을 때 꺾인다.

홍수 같은 군대가 그 앞에서 휩쓸려 갈 것이며 꺾일 것이니, 참으로 언약의 군주도 그러하리라. 다니엘 11:22.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는 기원전 164년에 끝났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군주”로서 “꺾이시기” 거의 이백 년 전의 일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셀레우코스 제국이 두 당사자 사이의 기만이 역사적 기록의 문제로 남아 있는

외교적 조약 결혼으로 시작하여, 동일하게 외교적 조약 결혼으로 끝났다는 사실이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 기간에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미국 혁명을 예표하였다. 마카비의 역사에서, 셀레우코스의 권세를 떨쳐 버리기 위한 그들의 투쟁에는 로마와의 중요한 조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조약을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그 구절은 또한 로마가 기만하게 행하였으며, 곧 조약의 자리에서 거짓을 말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지목한다.

그와 동맹을 맺은 후에 그는 속임수로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 적은 무리로 강성하여질 것임이라. 다니엘 11:23.

마흔째 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앞서서 모든 예언적 계보에는 깨진 조약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아 스미스는 삼십절의 "거룩한 언약을 버리는 자들"에 대해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언약을 향한 분노'란 곧 거룩한 성경, 곧 언약의 책을 가리킨다. 이러한 성격의 혁명은 로마에서 이루어졌다. 로마를 정복한 헤룰리족, 고트족, 반달족은 아리우스파 신앙을 받아들였고, 가톨릭 교회의 원수가 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교황을 교회의 수장으로, 또한 이단들을 징벌하는 자로 선포한 것은 특별히 이 이단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성경은 곧 일반 백성이 읽어서는 안 될 위험한 책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논쟁 중인 모든 문제는 교황에게 제출되어야 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욕이 더해졌다. 그리고 여전히 존속하고 있던 그 동방 구역의 로마 황제들은, 언약을 버리고 큰 배도를 이루었던 로마 교회와 내통하거나 이를 묵인하여, '이단'을 억압하고자 하였다. 서기 538년, 당시 로마를 점유하고 있던 아리우스파 고트족의 패배로 말미암아 죄의 사람이 그 참람한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Uriah Smith, Daniel and the Revelation, 281.

다니엘 11장 5절은 남방 왕이 외교적 신부를 제공하는 역사적 계열을 지목하는데, 이는 그 후 북방 왕에 의해 깨뜨려질 조약의 상징이다. 남방 왕의 보복은 1798년에 교황권적 북방 왕에 대항한 나폴레옹의 영적 남방 왕의 보복을 예표하였다. 5절부터 9절까지의 깨어진 조약은 나폴레옹의 파기된 툴렌티노 조약을 예표하였고, 이는 다시 NATO에 의해 조약이 파기되었다는 푸틴의 주장을 예표하였다. 나폴레옹의 보복은 2014년에 우크라이나를 향한 푸틴의 보복을 예표하였다. 제4차 시리아 전쟁을 끝낸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의 10절의 보복은 1798년의 나폴레옹과 또한 2014년의 푸틴에 부합한다. 기원전 200년의 15절의 파니움 전투 이후, 안티오쿠스는 지상군의 군화를 사용하지 않고 이집트를 자신의 지휘 아래 두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외교적 결혼을 주선하였다.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의 왕위는 그의 아들에게 계승되었으나, 그는 암살되었고, 그 결과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의 막내아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올랐다. 그가 헬라의 관습과 종교를 시행한 행위는 마카비 반란을 야기하였고, 이는 23절의 로마와의 기만적인 조약으로 이어졌다. 24절은 이교 로마를 도입하며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의 거짓의 상을 지목한다. 30절에서 이교 로마는 교황권 교회와 대화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거룩한 언약을 깨뜨린 자들로 언급된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교 로마의 증언이며, 31절부터 40절까지는 교황 로마의 증언을 제시한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40절에 이르기까지의 각 행은 모두 예언의 한 행을 이루며, 그 예언의 행은 40절의 숨겨진 역사에 적용된다. 셀레우코스 왕국의 행,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행, 마카비 가문의 유대 왕국의 행, 이교 로마의 행, 그리고 교황 로마의 행은 모두 1989년부터 일요일 법에 이르는 역사를 예시한다. 그 각 행은 모두 그 역사에서 조약의 파기를 중대한 요소로 제시한다.

다니엘 11장의 이상을 확립하는 것은 로마이며,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기만의 예언적 조약은 모두 점진적인 것으로 표지되어 있고, 또한 각각의 구별된 예언적 기간 동안 로마가 최고의 지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표지되어 있다. 두 세력은 각기 세 번째 장애물이 제거되었을 때 우월권의 예언적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 시작점을 표시하였다. 미국에서 곧 다가올 일요일 법 이전에 두 세력 사이에 기만의 조약이 있을 것이다. 두 세력은 네 차례에 걸쳐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이었는데, 한 번은 유다의 영화로운 땅과 로마 사이에서, 한 번은 로마 삼두체제의 두 부분 사이에서, 그리고 한 번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사이에서 그러하였다. 로마에 관한 두 기만적 조약은 모두, 그것이 동방의 안토니우스와 서방의 아우구스투스이든, 혹은 동방의 이교 로마와 서방의 교황 로마이든, 결국 로마 제국의 한 절반과 다른 절반 사이의 조약이었다.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 사이의 기만의 조약 네 번, 동방의 왕과 서방의 왕 사이의 조약 두 번, 그리고 장차 북방의 왕이 될 세력과 영화로운 땅 사이의 조약 한 번.

이것으로 다니엘서에 대한 우리의 초기 제시를 마친다. 파니움 시리즈는 다니엘서에 관한 연속 연구의 결론을 이루며, 이는 제40절의 숨겨진 역사에 대한 서론인데,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를 계속 고찰할 것이다.